

# 시차

2024.10.29-11.16  
두산아트센터  
Space111

두산은 젊은 예술가들의 새로운  
시도를 응원하고 지원합니다

**DAC Artist**  
**배해률**

DAC Artist  
DOOSAN  
ART CENTER  
Artist

공연예술 분야의 40세 이하 젊은 예술가들을  
발굴, 선정하여 신작 제작, 작품개발 리서치 및 워크숍 등  
다양한 창작활동을 지원합니다.

두산은 젊은 예술가들의 새로운 시도를 응원하고 지원합니다  
DOOSAN encourages and supports young artists and  
their innovative endeavours

아티스트  
Artist  
(2008-2024)

강동훈(극작가) 박주영(작·연출가)	김은성(극작가) 〈빨〉〈목란언니〉
배해률(극작가) 〈시차〉	여신동(무대디자이너·연출가) 〈나는 나의 아내다〉〈배수의 고도〉 〈사보이 사우나〉〈목란언니〉
신진호(연출가) 〈애도의 방식〉	〈소설가 구보씨의 1일〉 〈잠 못드는 밤은 없다〉〈인어도시〉 〈마이 아이즈 Went Dark〉〈폭스파인더〉
강현주(작·연출가) 〈잘못된 성장의 사례〉	성기웅(작·연출가) 〈가모매〉〈소설가 구보씨의 1일〉 〈깃분우리절문날〉
진해정(작·연출가) 〈러브 앤 인포메이션〉	이자람(국악창작자) 〈판소리 단편선-주요섭 추물/살인〉 〈사천가〉
진주(극작가) 〈클래스〉	서재형(연출가), 한아름(극작가) 〈청춘, 18대 1〉
추다혜(국악창작자) 〈광-경계의 시선〉	
이승희(국악창작자) 〈몽중인-나는 춘향이 아니라,〉 〈동초제 춘향가-몽중인 夢中人〉	
김수정(작·연출가) 〈김수정입니다〉〈이갈리아의 딸들〉	
윤성호(작·연출가) 〈꿈이 아닌 연극〉 〈외로운 사람, 힘든 사람, 슬픈 사람〉	
이경성(작·연출가) 〈워킹 홀리데이〉〈비포 애프터〉 〈서울연습-모델, 하우스〉	
양손프로젝트(창작그룹) 박지혜 연출 손상규, 양조아, 양종욱 배우 〈마이 아이즈 Went Dark〉 〈죽음과 소녀〉〈오셀로〉	
양태석(드럼아티스트) 〈Drum? Quest Solo〉 〈술로 드럼 퍼포먼스〉, 앨범 〈Human Fractal〉	



강동훈(극작가)  
Kang, Dong Hoon  
Playwright



박주영(작·연출가)  
Park, Ju Young  
Playwright · Director



배해률(극작가)  
Bae, Hae-youll  
Playwright



신진호(연출가)  
Shin, Jin Ho  
Director



강현주(작·연출가)  
Kang, Hyun Ju  
Playwright · Director



진해정(작·연출가)  
Jin, Hae Jung  
Playwright · Director



진주(극작가)  
Jin, Ju  
Playwright



추다혜(국악창작자)  
Chu, Da Hye  
Minyo Artist



이승희(국악창작자)  
Lee, Seung Hee  
Pansori Artist



김수정(작·연출가)  
Kim, Su Jung  
Playwright · Director



윤성호(작·연출가)  
Yoon, Sung Ho  
Playwright · Director



이경성(작·연출가)  
Lee, Kyung Sung  
Playwright · Director



양손프로젝트(창작그룹)  
박지혜 연출  
Park, Ji Hye  
Director



양손프로젝트(창작그룹)  
손상규 배우  
Son, Sang Kyu  
Actor



양손프로젝트(창작그룹)  
양조아 배우  
Yang, Jo A  
Actress



양손프로젝트(창작그룹)  
양종욱 배우  
Yang, Jong Ook  
Actor



양태석(드럼아티스트)  
Yang, Tae Seok  
Drum Artist



김은성(극작가)  
Kim, Eun Sung  
Playwright



여신동(아트디렉터·연출가)  
Yeo, Shin Dong  
Art Director



성기웅(작·연출가)  
Sung, Ki Woong  
Playwright · Director



이자람(국악창작자)  
Lee, Ja Ram  
Pansori Artist



서재형(연출가)  
Seo, Jae Hyung  
Director



한아름(극작가)  
Han, Ah Reum  
Playwright



## 극작가 배해률

DAC Artist

### 극작

〈사월의 사원〉〈서울 도심의 개천에서도 작은발톱수달이 이따금 목격되곤 합니다〉〈여기, 한때, 가가〉〈7번국도〉〈비엔나 소시지 야채볶음〉 외

### 대본·작사

〈차차차원이 다다른 차원〉

### 수상

2022 제59회 동아연극상 작품상 〈서울 도심의 개천에서도 작은발톱수달이 이따금 목격되곤 합니다〉

2021 제11회 벽산문화상 ‘희곡부문’ 〈사월의 사원〉

## 작가 노트

쓰지도 않았는데 염려부터 받을 줄이야. 또 사회적 참사냐는 그 말 때문이라도 아무래도 또 참사에 대한 이야기를 써야 했습니다. 실재하는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걱정도 있었습니다. 그 염려에 단단한 답을 내어주고 싶었지만, 그저 이 ‘이야기’가 담고 있을 어떤 순간, 어떤 장면, 어떤 인물들을 써야 할 것 같다는, 써야만 한다는, 쓰고 싶다는 충동으로 일단 〈시차〉의 세계를 만나본 후에야 그 걱정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 봅니다.

다가가기 희곡 혹은 이야기를 왜 쓰기 시작했는지 반추해 봅니다. ‘연극과 희곡이 그저 좋았기 때문에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거짓말인 것 같고요. ‘어쩌다 보니 하고 있네요?’ 따위의 대답은 회피일 테고요.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의 가장 설득력 있는 답변을 떠올려보자면 ‘사회 부적응 때문에 시작했어요.’가 맞겠습니다.

처음 극작을 시작했을 즈음에는 모든 관계를 맺는 것에 서툴렀습니다(물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안부를 물어주고 싶은 누군가가 생겼을 때도 안부 하나 건네는 게 곤란했고, 안부를 물어 와줬으면 하는 누군가가 생겼을 때는 더더욱 곤란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야기라는 허구는 일종의 사고 실험 같은 것이 되어주었습니다. 극한의 상황에서 타인에게 안부를 묻기 위한 다양한 루트를 찾아보는 시도들. 다가갈 수 없을 것 같던 남에게 다가가 보는 실험들. 그렇게 언제나 ‘남’의 일상과 마음들을 상상해 보면서, 이런 식이면 닿을 수 있을까 싶던 ‘남’들에게도 닿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착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따금 무대에서 당사자성을 빌미로 현재 진행 중인 참사들을 밀어내려는 이들을 마주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가 아님’은 밀어내는 이유라기보다는 다가가기 위한 이유라는 쪽에 가까운 듯했습니다. 설령 그것이 착각이라고 해도, 계속해서 시도해 보는 것이 적어도 저에게는 필요했습니다. 어쩌면 〈시차〉도 결국 어떤 안부를 전해보기 위해 지어낸 착각들에 관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잇기 전업 극작가가 되면서 다른 파트의 참여자들과 부득이한 ‘시차’가 생겼습니다. 그들이 가장 치열하게 당장의 공연을 파고들 때, 작가는 다음의 작업을 기약하며 새 희곡으로 넘어가야만 했거든요. 이번 작업만 하고 연극을 그만둘 것이 아니라면 무언가를 계속 쓰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매번 새 희곡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시작되어야만 했고요. 신작을 써야 하는 주기가 찾아오면, 머릿속을 떠도는 단상들을 하나씩 하나씩 주워서 정리했습니다. 쓰고 싶었던 존재, 시도해 보고 싶었던 플롯, 뇌리에 박힌 기사들, 어떤 슬픔들, 어떤 부조리들, 닿고 싶은 장소들... 서로 관련이 있기는 한가 싶은 요소들을 엮어내려 했습니다. 그때마다 ‘이야기’는 성근 접착력을 가진 풀 같은 것이 되어주었습니다. 하나의 이야기에 담을 수 있을까 싶은 것들을 기어코 하나의 무대 위에 올리게 해주었습니다.

매끄러운 이야기를 위해서는 성근 풀이 아니라 강력 본드로 붙일 수 있는 것들만을 엮어내는 것이 아무래도 편리할 것입니다. 분명 그렇게 머리로는 아는데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는 손가락들은 항상 그와 반대로 향하려 하는지 모르겠어요. 기어코 저 구석과 구석에 떨어져 있는 것들을 이어 붙이려고.

모든 것들이 무대 위에 ‘함께’ 있다는 감각이 저에게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떨어져 있지만 연결되어 있고, 혹은 연결되어 있나 싶지만, 어쨌든 함께 같은 세계 안에서 어떤 순간들을 겪어내고 있다는 확인이 서로의 외로움을 덜어줄 수 있으리라고 믿었습니다. <시차>에도 멀리 떨어져 있는 이들이 나옵니다.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서로가 어딘가에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감각을 그들에게도 쥐어 주고 싶었습니다.

실패하기 고백하자면 가끔 자기 비하를 위해 희곡의 가치까지 폄하하려 했습니다. ‘뭘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냐, 나 자신아- 어차피 다 가짜인데.’ 하지만 그렇게 뽀고 나면, 도리어 희곡은 가짜이기에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희곡 쓰기는 가짜가 진짜에 닿을 수 없음을 인정하는 일이 아니라, 진짜가 하지 못했던 것들을 시도해 보는 일이 되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시차>의 마지막 장면은 계속해서 고쳐졌습니다. 진짜에서도 종결하지 않은 이야기를 허구에서 종결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언가 계속되는 인상이 필요했고, 잘 아문 결말과는 거리를 두고 싶었습니다. 드라마를 통과하며 변화된 인물들이 미래를 기억하며 끝나는 이야기 대신 <시차>의 세계를 만나면서 취하려 했던 태도들을 담고 싶었습니다. 무언가는 가능했고, 무언가는 여전히 희곡이 닿을 수 없는 한계로 남아있었습니다.

무결한 이야기를 쓰고 싶다는 욕심을 종종 갖게 됩니다. 안정적인 드라마 구조 속 이야기를 써냄으로써 극작가로서의 역량을 증명해 내고 싶은 욕망 같은 것. 하지만 차라리 실패하는 것이 나은 이야기도 있겠습니다.

희곡을 쓰면서 항상 이 이야기가 무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시차>를 쓰면서도요. 이야기 속 인물들에게 바짝 다가가서 느닷없이 서로를 이어버리고 작가의 사적인 실패에 그들을 엮어내는 동안, 혹여라도 그들에게 실례를 범한 것은 없을지 벌써부터 송구스럽습니다. 모두 공연을 보는 내내 부디 무탈했기를.

극장을 나설 때, 1부의 첫 장면이 (긴 러닝타임과는 별개로) 아주 오래전의 일처럼 느껴졌으면 합니다. 혹은 누군가 공연이 끝나고 한참이 지나 (감사하게도) 문득 이 <시차>를 떠올릴 때, 유난스러운 아득함으로 기억했으면 하고요.

이제 몇 주 뒤면 <시차>가 무대에 오르겠네요. 먼 줄만 알았던 때와 곱을 함께 다녀올 날을 기다리며 이만 즐기겠습니다. 총총.

## DAC Artist 배해를 인터뷰

### 배해물의 시간과 시차

진행. 김예리(홍보마케팅 매니저)  
정리. 조유림(공연 예술 프로듀서)

“앞으로도 선의에 매달리는 존재들의 이야기를 쓰고 싶습니다.”

배해물은 인간과 세계에 대한 섬세한 이해를 자신만의 분명한 태도와 시간으로 차근차근 쌓아 올리는 극작가다. 10분 희곡 <그럼에도 불구하고>(2016)를 시작으로 <7번국도>(2019), <비엔나 소시지 야채볶음>(2019), <서울 도심의 개천에서도 작은발톱수달이 이따금 목격되곤 합니다>(2022), <사월의 사원>(2022) 등에서 드러나듯, 그가 만드는 이야기에는 동시대 크고 작은 사건들 속에서 타자에게 선하려는 의지를 가진 이들의 마음이 서로 어긋나고 겹쳐지고 충돌하는 순간들이 보인다. 그러나 무대 위로 쏟아지는 조각들은 냉소 어린 체념도 포기도 아니다. 어둠 너머의 것으로 나아가려는, 그래서 마침내 어딘가에 닿고야 마는 밝음이다. 이 인터뷰는 그가 극작가가 되기 전에 느꼈던 감각, 극작가로서 느끼는 감각, 그리고 이후에도 유지하고 싶은 감각에 대해 나누는 이야기이다. 배해물의 시간과 시선을 따라가 보면서 그가 희곡을 쓰며 느끼는 감각들을 이해해 보고 싶은 마음을 담았다.

### 1992년~, 배해물의 ‘처음’

‘극작가’ 배해물의 첫 글, 첫 연극, 첫 극장 등. ‘첫 감각’들에 대해 들어다본다.

### #첫, 글

‘극작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완성한 글에 대해 떠오르는 기억이 있을까요?  
어렸을 때 인정 욕구가 높았습니다. 교내 글쓰기 대회나 외부 백일장에도 자주 나갔었고,

시화도 포함된 동시 대회가 있으면 꼭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는데 ‘냉장고’라는 제목으로 부모님을 냉장고에 비유해서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전달해주는 사람들이라는 아주 불효막심한(웃음) 내용의 시를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다른 기억은 ‘일기’에 관한 건데, 방학 숙제로 일기 쓰기가 나오면 기상 정보를 펼쳐놓고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하루에 몰아 쓰곤 했습니다. 그날 무슨 일을 했는지는 다 지어냈었고요. 그때부터 작가의 기질이 있었나 봅니다.(웃음)

어렸을 때도 지금도 다른 작가님들에 비해 독서량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관심 있는 주제가 생기면 관련된 책을 파고드는 스타일입니다. 어릴 적부터 책을 많이 읽었다면 지금보다 문해력도 좋고 속도도 가능했을 텐데, 이번 생애 다 읽지 못할 책들이 있다는 것이 슬프네요.

그럼에도 글이라는 매체와 가깝게 지내고 결국 극작가를 직업으로 삼게 된 이유는 무엇이였을까요?

글보다는 이야기가 먼저였습니다. 공연을 보면서 ‘저 연극을 위해 글을 쓰는 사람들도 있겠지? 무대에서 약속을 만들어 주는 사람은 누구일까?’라는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로 엮이 되었습니다.

### #첫, 희곡

경영학이 맞지 않아 대학교를 1년 쉬었다고 들었습니다. 대학교를 다니며 자연스럽게 연극을 접했고, 서울로 돌아와 희곡을 배웠다고요. 꼭 희곡 극작이었던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처음엔 극작을 취미로 시작했습니다. 대학교 수업이 맞지 않아 괴로워했던 것이 지금의 저로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게, ‘소비자 행동론’ 수업에서 교수님이 고객 서비스와 관련해 비윤리적인 예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 빼고 모두가 웃고 넘어가더라고요.

제 안에서 한 번 터지고 나니까 학교 수업에 흥미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하고 싶은 것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싼 학비가 드는 학원처럼 다녔습니다.

이때까지도 연극을 업으로 삼아야겠다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0분 희곡 페스티벌'에 당선되면서 연극 환경을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엔 계속 습작을 하다가 순전히 피드백을 받고 싶은 마음에 남산예술센터 '초고를 부탁해'라는 프로그램에 지원했습니다. 기성 작가님들이 제 글을 어떻게 읽어줄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실은 그 전에 대산대학문학상에 지원한 작품이 최종심에서 떨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심사평을 소중히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심사평을 써주신 분도, '초고를 부탁해'에서 피드백을 주신 분도 고연옥 작가님이셨습니다. 그때 연극 작업과 희곡 쓰기에 대해서 많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음악극 창작을 공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뮤지컬이 아닌 연극을 선택한 이유가 있었나요?

꼭 극작을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시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공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다양한 측면에서 경험해보고 싶었습니다. 배우는 남 앞에서 나서야 한다는 사실을 극복하기가 어려워서 하고 싶지 않았고, 연출은 저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본능적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연출가는 팀 전체를 조율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저는 그럴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작가를 선택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뮤지컬이 아니라 연극이었던 이유는 처음 겪은 환경의 안정성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뮤지컬 작업도 시도해 봤었습니다. 공모에 당선돼서 쇼케이스를 진행하기도 했었는데, 그 짧은 과정에서도 부조리한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한 번 부침을 겪고 나니까 더 하기는 어렵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연극은 운이 좋게도 남산예술센터와 '여기는 당연히, 극장' 팀과 시작했습니다. 그때의 안전한 작업환경에 대한 경험이 이후 작업에서도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2016년~2023년 배해률의 희곡과 감각들**  
배해률의 주요 작품들을 훑아보며 작품을 써야겠다고 결심한 이유, 작업 과정에서 가장 많이 느꼈던 감각을 들어보다.

**#2019년 <7번국도>**

<7번국도>는 군 복무 중 택시를 탔었는데 기사님의 얼굴이 낮이 익게 느껴졌고 그것을 나중에 깨달았다는 것, 뒤늦게 발견하였다는 것에 대한 이상한 감각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희곡을 본격적으로 무대화하는 과정을 처음 경험한 작품입니다. 그러면서 객석에 당사자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희곡을 쓴다'라는 것이 의미가 사적인 것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감각을 많이 느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는 연극을 만드는 것이 공동의 작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이 아니라 '관객들과 만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중성' 차원의 의미가 아니라 객석을 조금 더 넓게 상상하는 차원에서의 말이기도 합니다.

작품을 준비하면서는 뉴스 기사와 '반올림'이라는 단체가 해온 활동들을 찾아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사자들도 가려진 정보에 의해 알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가족이나 연인 혹은 친구가 부조리한 일을 당했음에도 그 구조를 들여다볼 수 없게 하는 또 다른 막이 쳐져 있었습니다. 그 부조리함과 맞서 싸우기를 선택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싶었습니다.

**#2022년 <서울 도심의 개천에서도 작은발톱수달이 이따금 목격되곤 합니다>**

논리가 아닌 충동으로 장면을 써내려가는 희곡들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충동을 주된 동력으로 삼아 쓴 것 같습니다. 마치 어떤 화가들이 그림이나 어떤 장면이 불현듯 떠오르는 것처럼요. 그림에서는 그게 가능한데 글에서는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희곡에서 시도해 보려고 했습니다.

'재미있다'는 감각을 가장 많이 느꼈던 작업이었습니다. 국립극단 [창작공감: 작가] 프로그램은 작가가 이것저것 많은 것을 시도할 수 있도록 열어두고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이야기가 무엇이 있을지 자유롭게 상상하고 시도할 수 있었습니다. 동료 작가분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이라 그 자체에서 오는 재미도 있었지만, 연습 과정도 즐거웠습니다. 연습실에서는 적극적으로 희곡의 의미를 발굴해내는 경험을 했습니다.

원래 희곡을 쓰면서 무대의 미장센을 상상하지 않는 스타일인데 이 작품은 쓰면서부터 아래는 연출님의 작품들을 상상했었습니다. 무대화가 결정되고 래은 연출님과 작업하고 싶다고 먼저 이야기했고, 그게 맺어져서 무척 기뻐했습니다. 연출님이 이 희곡을 잘 읽어내 주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이상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2022년 <사월의 사원>**

<사월의 사원>은 세월호 참사를 은유하는 이야기로서 떠올렸습니다. 이따금 사람들은 참사에 대해 언급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기도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아니야. 이거 지금 진행 중이야. 우리 아직 지켜봐야 할 것들이 남아있어.'라는 마음이 컸습니다. 일종의 분노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몇 해 전, 친척 중 한 명이 세월호 참사 유가족분이 나온 뉴스를 보고 '아직도 그러냐?'는 식의 비하하는 흉한 말을 했습니다. 다수가 그 말이 잘못되었다는 걸 인지하고 있음에도 동조하려고 하는 그 상황에 대한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사월의 사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가 아닌 인물에서 시작한 작품입니다. 캄보디아 이주 노동자분들이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숨진 사건에 대한 뉴스를 접했고, 그때 떠오른 인물들을 한 집에 모아보자는 생각으로 시작했습니다.

타이밍이 되면 무대를 찾아보자고

생각했었는데, 당시엔 공모전에 참여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제11회 벽산문화상 희곡부문에 당선되면서 안정적인 환경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월의 사원>을 쓰면서 저와 유사한 분노를 느끼는 사람들이 관객으로 앉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창작진이나 동료들도 마찬가지로, 이 공연을 보러 온 사람이라면 그럴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당사자성**

'당사자가 객석에 앉아 있으면 어떻게?'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많이 달라진다고 말씀하셨던 기억에 남습니다. 어떻게 달라지고 반영되었는지, 언제 처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당사자 앞에서 비극을 이야기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물음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것이 아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면, 지금은 어떠한 방식을 갖춘다면 가능하고, 심지어는 필요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관객석에 그들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윤리적으로 옳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연하게도 그들은 어디에나 있을 수 있으니까요.

책 『선량한 차별주의자』에 나온 '정의의 범위'가 제가 생각하는 관객석의 범위와 맥이 통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정의로워야 하는 범위가 넓어질수록 놓치는 것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객석'의 범위를 '정의'의 범위와 같은 맥락에 두고 상상했을 때, 희곡에서 부재한 부분들이 발견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차>는 한 가지로 귀결되는 이야기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썼습니다. 당사자성에 짙고 연함이 있다면, 그 짙고 연한 모든 존재가 참사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음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참사와 열게 관계를 맺고 있는 누군가도 참사를 통해 변화를 경험하고 삶의 방향이 굴절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 2024년 배해롤의 <시차>

### #인물들

약 10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각 인물들을 떠올린 과정과 그런 설정을 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당사자성의 열고 질음의 정도에 따라 인물을 다르게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계급적인 것도 있었습니다. 지수의 경우 부자 캐릭터인데, 그 계급 때문에 가능한 무엇인가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유한 사람이 조금 더 멀리, 잘 나아가는 것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돈 걱정하지 않고 훌쩍 여행을 떠나버리는 그런 '여유가 있어야만 가능한 선택'이 낭만적이기보다 슬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계급과 선의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가장 애착이 가는 인물, 혹은 쓰기에 가장 어려웠던 인물이 있으셨나요?

모든 인물이 애착이 가지만 아무래도 윤재에게 마음이 가장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윤재는 극 중에서 유일하게 행동하는 인물이자, 자신의 욕망에 적극적으로 솔직한 인물입니다. '타인에게 무언가를 더 해주고 싶은 마음도 욕망이라면, 착한 욕망은 과연 무결할 수 있을까? 만약 그렇다면 얼마나 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윤재를 통해 아무리 착한 마음과 의도로 무언가를 행하더라도 불경한 의도가 침투할 수 있고, 어느 순간엔 사적인 마음이 뒤섞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 했습니다.

윤재는 희곡에서는 가장 중요한 인물이지만 참사의 당사자성은 가장 열습니다. 관객이 작품을 다 보고 나면, '참사와 동떨어져 있는 사람도 여기까지 갈 수 있구나'라는 감각을 느꼈으면 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성이 없는 인물로 윤재와 지수를 엮어서 같은 배우가 연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인물은 필요에 의해서 들어온 인물입니다. 1부 사장 형 같은 경우,

전 배역이 1인 2역으로 연기를 한다는 연출적 의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추가되었습니다.

### #1부 윤재와 희영

윤재는 어떻게 그렇게 무척대고 다정할 수 있었는지 궁금했습니다. 남편에게서 도망치는 희영을 보고 연민을 느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혹 그 의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의도였을까요?  
희곡에 다양한 이유를 심어놓는 편인데, 윤재 역시 그랬습니다. 윤재는 아픔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픔에 쉽게 공감할 수 있을 것이고, 집에서 나와 온 좋게 타인의 선의를 계속 받으면서 살아왔으니 선의를 주는 방법도 알게 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정말 무척대고 다정한 성정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겠죠. 관객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윤재의 의도를 추측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희영의 경우 절박함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아마 어느 순간엔 세민이가 큰 짐처럼 느껴지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남에게 세민이를 맡기고 난 다음의 불안감과 그럼에도 내가 지금 돌보지 않아도 된다는 후련함, 그 마음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한다는 외로움과 속상함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희영이라는 캐릭터가 가장 힘든 여정을 겪고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생각에 희영이는 남편에게서 계속 도망을 다니고 있었을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어떤 선의들을 경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스피노프를 쓴다면 희영이의 그 한 달을 써보고 싶습니다.

### #2부 세민과 선아

완벽한 타인인 두 사람이 공통된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세민과 선아가 서로에게 뽀은 선의와 영향에 대해 들려주실 수 있나요?  
세민과 선아는 '불완전한 선의'가 보여지는 관계입니다. 서로에 대해 모르는 낯선 두 사람이 공통의 목표, 그것도 타인을 위한 선의를

갖고 만났다는 점이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완벽하게 성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연대'가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비슷한 처지에 있는데 함께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를 되묻는 것 자체가 강요일 수 있으니까요. 연대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 모순되게도 사건에서 무거움을 덜어내려 했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를 마냥 해피엔딩으로 끝내고 싶지 않기도 했습니다. 장례를 결국 이뤄내서 이 모든 서사가 '종결'된다는 감각을 빼고 싶었습니다. 무연고 장례 장면의 경우 몰래 치러져야 한다는 긴장감과 슬픔을 느끼면서 썼습니다. 슬프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게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이 참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고, 잊지 않았고, 그다음에 생각하는 동시에 과거를 생각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중국에 해피엔딩이 되어버리면 오히려 마음에 남는 게 없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 #2부 세민과 희영

'별 찌라는 말이 마지막이었어.' 희영은 세민에게 마지막 말로 '별 찌라'는 말을 남깁니다. 희영과 세민에게 별은 어떤 의미가 있는 행위였을까요. 또 작품에서는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궁금합니다.  
희곡에 제 흔적을 은근히 남겨두고 싶었습니다. 4월 5일이 제 생일이거든요.(웃음) 2부의 이야기가 4월 5일 식목일부터 시작되니 선아가 화분을 들고 오게 되고, 화분을 들고 오게 되니 화분과 사람 사이의 관계성을 보여주는 '별'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누가 가장 별 찌는 걸 좋아했을까?'를 생각하니까 희영이 떠올랐습니다. 희영이는 왠지 지방의 공장에서 일하다가 잠깐 별을 찌는 그 시간을 소중히 여겼을 것 같았거든요. 지극히 사적인 욕망에서부터 시작된 설정입니다.(웃음)

## <시차> 이후의 배해롤

어떤 작품을 만들고 감각하는 극작가가 되고 싶으신가요?

당장 주어진 것들을 해내려고 하는 편이라서 흘러가는 대로 살게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내년 1월에 <목련풍선>이라는 작품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에 쓰기 시작해서 여기서 처음 공개하는 신작이 있는데요, 1938년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희곡을 쓰고 있습니다. 주요 인물만 11명에, 들개들이 등장하는 대극장 규모의 작품입니다. (관심 있는 극장은 연락 주세요...)

어떤 극작가로 기억되고 싶은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특정한 타이틀로 규정되고 싶지는 않아서요. 다만 이것저것 다 잘 쓰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선의에 매달리는 존재들의 이야기를 쓰고 싶습니다.

1부

1994년 10월 21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병실. 참사 소식으로 세상이 산란한 가운데, 퇴원을 앞둔 최윤재는 병실 동기 최희영이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고 있음을 알게 된다. 자신의 아이만이라도 남편으로부터 떼어놓고 싶다는 최희영의 말에 최윤재는 어떤 결심을 하기에 이른다.

1994년

- 최윤재** “일면식도 없는 피떡 얼굴도 들쳐 업고 뿔 수 있는 사람, 하나 더 있으면 좋잖아.”  
익선동의 술집에서 전날의 새벽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중 취객 무리에게 폭행을 당하고 병원에 실려왔다. 병원에서 머무는 동안 옆자리 최희영과 친해진다.
- 박현오** “이 애가 아니었어도. 너 다시 돌아왔을 거야?”  
1970년 10월 17일, 교사였던 박현오의 부모(정재영과 박정도)는 수학여행을 가던 중 원주 삼광터널 열차 충돌 참사로 사망하였다. 이후 박현오는 고모 박정현의 집에 맡겨졌다. 성수대교 참사 당일, 연락도 없이 사라졌던 그의 연인 최윤재가 누군가와 함께 박현오에게 돌아온다.
- 최희영** “삼촌이 진짜 우리 세민이 좀 데려갈래?”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자신의 딸 신세민만이라도 그 굴레에서 탈출하기를 바란다. 마침 그의 병실 옆자리에 무턱대고 다정한 최윤재가 있다.
- 박정현** “니네 아들 왜 이렇게 어렵니.”  
대학병원 의사.  
1970년 10월 17일, 동생 박정도와 올케 정재영이 열차 충돌 참사로 사망하였다. 그 뒤로 조카 박현오를 돌보게 된다.
- 사장 형** “내가 쓸데없이 정이 많아.”  
최윤재가 일하는 바의 사장. 아버지의 폭력을 피해 무작정 집을 나온 최윤재를 도와주었다.

2부

2014년 4월 5일. 지방의 어느 병원 부속 장례식장. 쪽잠에 든 장례지도사 최세민의 꿈에 낯선 얼굴의 망자가 나타나 자신을 어디에선가 꺼내달라고 애원한다. 한편, 새로 부임한 병원장에 의해 주기적으로 해오던 무연고 장례식이 중단되고, 곧 장례를 앞두고 있던 연고 없는 한 고인은 안치실에 갇히게 된다. 그런데 찬 곳에 갇힌 이 고인의 얼굴이 최세민의 눈에 어딘가 낯이 익다.

2014년

- 최세민** “별 찌라는 말이 마지막이었어.”  
(신세민) 장례지도사.  
어머니(최희영)의 죽음 이후, 어머니의 성을 따라 신씨에서 최씨로 개명하였다. 최희영의 기일이 다가오자 최세민은 어머니에게 해주지 못한 것들만 떠오르고, 장례지도사 일에 권태를 느끼게 된다.
- 김선아** “저건 지키겠다고 내가 약속했는데, 그치.”  
고고학자.  
1995년 6월 29일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로 동명이인 친구 선아를 잃었다. 추모식에서 만난 ‘반장님’이 실직하자 자신의 일터에 불러주었다.  
종종 무연고장례에 조문을 하러 간다.
- 윤지수** “너... 괜찮아?”  
최세민의 장례지도사 선배. 현재는 일을 그만둔 상태이다. 페이스북에서 알게 된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여행을 떠난다.
- 반장** “다음 거 지키면 되지.”  
고고학자 김선아와 발굴 작업을 함께 하는 인부 팀의 반장.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추모식에서 김선아와 알게 되었다. 김선아에게 무연고 장례에 함께 조문을 가져고 제안하지만 정작 본인은 가지 않는다.  
2014년 4월 16일, 친구들과 배를 타고 제주도로 여행을 떠난다.
- 조문객** “별이 좋다고.”  
무연고장례자 최윤재의 조문객. 길 위에서 만난 최윤재가 자신에게 금니를 유산으로 남겼다고 주장한다.

1970년

10월 17일

원주 삼광터널 열차 충돌 참사.  
이 사고로 박현오의 부모(정재영과 박정도)가 사망하였다.  
그 뒤로 박현오는 고모 박정현이 돌보게 된다.

1994년

1부

10월 21일

오전 7시 38분  
성수대교 붕괴 참사

오전 8시  
최윤재와 최희영이  
병원에서 단수가  
발생한다.

최윤재가 최희영의  
아이인 신세민을 돕기  
위해 어떤 일을 꾸민다.

늦은 저녁  
최윤재가 연인 박현오의  
집으로 돌아온다.

11월 21일

아침  
최희영이 박정현을  
찾아와 도움을  
청한다.

11월 22일

저녁  
박정현이 박현오의  
작업실에 찾아온다.

늦은 저녁  
박현오가 최윤재에게  
최희영의 복귀 사실을  
전한다.

11월 28일

오전  
최윤재와 신세민이 집을  
나선다.

오후  
박정현, 최희영,  
박현오가 텅 빈 박현오의  
집을 바라본다.

12월 25일

저녁  
박현오가 최윤재가  
일하던 가게를  
찾아간다.

12월 31일

자정이 가까운 시간  
박현오가 최윤재를 다시  
만난다.



1995년

6월 29일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김선아는 이 참사로 동명이인 친구 선아를  
잃었다. 추모식에서 반장을 알게 되었다.

2014년

2부

4월 5일

이른 아침  
지방의 어느 병원 부속 장례식장.  
장례지도사로 근무하는 최세민의  
꿈에 최윤재가 나타난다.

오전  
무연고 장례식에 다니던 김선아가  
장례식장 출입구 계단에서 담배를  
피우다 최세민과 만난다.

4월 9일

낮  
지방의 어느 아파트  
개발단지 안.  
김선아와 상사인 반장이  
유적 발굴 작업을 진행한다.

반장이 김선아에게 제주도  
여행 소식을 전한다.

4월 16일

오전 8시 50분  
세월호 참사

5월 17일

새벽  
최세민의 꿈에 최윤재가  
또 나타난다.

아침  
최세민의 선배 윤지수는  
페이스북에서 알게 된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여행을 떠난다.

남루한 차림의 조문객이  
장례식장으로 들어간다.

낮  
의문의 조문객과  
최세민이 만난다.

5월 18일

낮  
김선아와 최세민이  
무연고 장례를 치르기로  
한다.

2017년

6월 29일

이른 아침  
반장이 발견된다.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그리고...





**연출 윤혜숙**  
래빗홀씨어터 대표

연극  
〈은의 혀〉〈더 라스트 리턴〉〈정희정〉〈세컨드 찬스〉〈편입생〉〈당신을 초대합니다〉  
〈모자\_숨\_스물다섯〉〈춤의 국가〉〈마른대지〉〈우리는 이 도시에 함께 도착했다〉

수상  
2022 제1회 서울예술상 연극부문 우수상 〈정희정〉  
2020 두산연강예술상 '공연부문'  
2020 한국연극평론가협회 선정 '올해의 연극 베스트 3' 〈마른대지〉  
2020 월간 한국연극 선정 '공연 베스트 7' 〈마른대지〉

연극을 보고 있으면 관객들은 알고 있는 것을 무대 위 인물들은 모르고 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연극 〈시차〉에서는 이러한 삶의 격차가 관객은 현재에, 인물들은 과거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발생합니다.

연극 〈시차〉는 참사 당일로 갑니다. 지금 우리에게겐 과거이지만, 연극에서는 현재입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닥칠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미래, 돌이킬 수 없는 과거, 전조증상들의 외침을 여전히 듣지 못하는 현재. 이 극은 관점에 따라 여러 시간 속에 놓여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극 〈시차〉에서의 시차는 비단 1994년과 2014년 사이의 20년의 시간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시간들 속에서 연극은 두 마음을 따라갑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무력감, 그럼에도 뭐라도 해야겠다는 마음. 요동치는 이 두 마음 때문에 낯선 사람의 몸의 무게를 오롯이 느끼며 무작정 들쳐업고 뛰는, 당장이라도 내려놓고 싶을 만큼 팔이 빠질 것 같아도 고쳐 업고 또 고쳐 업으며, 터져버릴 것 같은 심장을 손에 쥔 채 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이 시간들 속에 있었음을, 있었을 것임을.

연극이 끝나면 현재가 밀려오고 삶의 격차도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마음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을까요? 우리는 알고, 그들은 몰랐던 게 맞을까요?

**배해률과 감각: 극작가가 감각하는 세계**  
진행. 김지혜(드라마터그)

극작가는 자신만의 과정을 통해 극을 지어 나갑니다. 이번 <사차> 작업을 통해 배해률 극작가의 글쓰기 과정에서 '감각'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해률 극작가의 경우, 이야기를 구상하는 단계에서 각 인물의 촘촘한 전사, 이어지는 사건들의 타래와 그에 필요한 충분한 리서치로 큰 틀을 먼저 만들어 놓는다고 합니다. 이후 글을 쓸 때는 지어진 큰 틀 안에서 최대한 감각을 따라 초고를 집필하고, 추후에 그 안에서 의미를 찾아내는 탈고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감각은 주관적인 영역입니다. 그렇다면 극작가가 감각하는 원형의 세계는 어떤 모습일지, 별이 좋았던 10월의 어느 토요일 아침에 나는 대화의 일부를 통해 소개합니다.

### 비선형의 시간

**김지혜:** 흔히 과거에서 현재로, 또 미래로 향하는 인과적이고 연속적인 시간적 흐름을 '선형적 시간의 흐름'이라고 합니다. 이번 <사차>에서는 극 속 시간의 흐름이 극 밖의 사회적 참사와 만나며 '비선형적'으로 그려지는 시도가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일상 속에서 시간이 '비선형적'이라고 느꼈던 순간들이 있는지, 그 순간에 시간들은 어떻게 감각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배해률:** 가끔씩 저녁이 오기 전 누런 빛이 창문을 타고 들어올 때, 그 빛만 보면 바로 꿰어지는 순간들이 있는데 이럴 때 비선형의 시간을 느낍니다.

옛날에 살던 집 제 방이 그 시간에 빛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때 저는 책상에 앉아 있고, 동생은 옆 침대에 엎드려 있고, 어머니는 바닥을 닦고 있던 그 순간이 갑자기 떠올랐다가도, 또 동시에 학교 끝나고, 방방(트램펄린)을 타던 순간으로 이동하기도 합니다.

또 어느 순간엔 고등학교 때 주말에 서울 사는 친구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고, 저는 혼자 기숙사에 있을 때의 순간으로도 이동합니다. 그 시간이 유일하게 혼자 즐길 수 있는 시간이었기에, 그 햇빛이 들어올 때 기숙사 방에서 혼자 보냈던 시간들로 순간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또 예전에는 악몽인 줄만 알았던 어떤 꿈속으로도 이동하기도 합니다. 그 빛이 내리쬐는 시간, 저는 복도식 아파트 우리 집의 제 방에 앉아 있습니다. 순간 누가 복도를 지나가다 제 방을 들여다봅니다. 그런데 그 얼굴이 너무 선명합니다. 길 가다 그 사람이 지나가면 짚을 수 있을 것 같은 그 꿈속의 순간으로도 이동합니다.

그 빛이 있었던 모든 차원과 순간과 시간과 공간이 한 번에 확 꿰어지는

경험들을 종종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럴 때 비선형의 시간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가만히 지하철을 타고 있다가 갑자기 지하철에 있는 나는 지워지고 과거의 어떤 순간에 몰입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순간 과거의 그곳을 다녀왔다가 다시 지하철을 타고 있는 저를 발견합니다. 지하철은 계속 달리고 있고 저도 그 지하철을 타고 있지만 '어딘가 계속 이탈해서 다녀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 비선형적 시간을 느낍니다.

최근 이태원에 가면 어쩔 수 없이 참사를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태원이 아니더라도 어떤 좁은 골목이라든지, 낯선 바다라든지, 참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았던 공간이 제 안에서 연결되는 경험들 속에서도 비선형의 시간을 느꼈습니다.

### 나와 아닌 타인과 함께하는 비선형적 순간

**김지혜:** 혹시 극작가님이 느낀 짧지만 강렬한 비선형적 시간으로 타인을 초대해 본 적이 있는지, 그리고 이 순간은 극작가님의 감각 속에서 어떻게 기억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배해률:** 친한 사람들과 서로가 같이 기억하고 있는 아프거나 슬펐던 일을 떠올릴 때, 그 시간으로 함께 가보는 경험을 종종 하는 것 같습니다. 그 기억이 앞에 영사되어 있지 않아도 그 시간에 함께 가서 장면들을 보면서 코멘터리를 던지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런 때 시간을 비선형적으로 함께 감각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기억

**김지혜:** 기억은 상당히 내밀하고 주관적인 영역에 존재합니다. 극작가님과 기억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기억은 극작가님의 머릿속에 어떤 형식으로 각인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배해률:** 동생이 언제 한 번 전화가 와서 누군가가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을 목격했던 장면을 제게 설명해 줬는데, 추후 그 기억이 제 것이 되어 있던 걸 발견한 적이 있었습니다. 동생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도 같은 곳에 서서 같은 것을 보고 왔다는 경험이 생겨버린 것 같았습니다. 때로 기억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어떤 통증이 되어 우리를 이어주는 길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종종 닫아버리고 싶은 기억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 덕에 만나기도, 그렇게 연결될 수도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 물

**김지혜:** <시차> 속 지수는 아침형 인간으로 일어나자마자 아침 수영을 간다는 점이 극작가님을 무척이나 닮았습니다. 극작가님의 글쓰기 루틴에 있어 아침 수영이 중요한 비율을 차지하던데, 물이라는 감각이 극작가님의 몸에 어떤 영향을 주고, 이는 또 어떤 새로운 사유와 감각의 영역으로 극작가님을 데려가 주는지 궁금합니다.

**배해률:** 제 고향이 속초라, 어릴 때는 바다에 가서 물놀이를 1년에 한 번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때 수영장 물에 빠졌던 경험이 있어요. 수영장 물을 마시고 토를 했는데, 그 이후 한참을 수영은 내 운동이 아니라고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작년 초, 문득 집 가까이 있는 수영장을 보고 내가 그동안 너무 물을 미워두고 살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도하는 마음으로 수영을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수영하다가 물이 문득문득 무서워지는 순간은 있습니다. ‘어, 이쯤 되면 내가 물 위로 떠야 하는데 아직 한 20cm 남은 것 같다’ 하는 기분이 들 때 혹은 너무 물입하다가 숨을 한 번 놓쳤을 때 물이 갑자기 무서워집니다.

하지만 수영은 제가 몰랐던 몸 쓰는 방식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주는 것 같기도 하기에 아침마다 꾸준히 가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낮선 땅을 밟아야 할 때나 낮선 공간에 들어섰을 때, 제가 발을 완벽히 다 디디지 않는 습관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엄지발가락을 다 들고 걷고 있는 저를 보며 ‘내가 어떤 낮선 땅을 밟는 것을 싫어했구나’라는 생각을 처음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물 안에서는 발을 딛지 않고도 움직일 수 있기에 그 감각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내가 지금 낮선 곳에서도 무언가를 자유롭게 하고 있어’라는 것에 대한 감각을 충분히 느끼며 수영을 해 보고 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니 물이 가진 다양한 감각들을 느끼려고 수영장에 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이렇게 ‘퐁당’하고 입수해서 ‘승’하고 출발할 때가 제일 좋은데요, 가장 속도가 빠른 순간이라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물이 저를 태워 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 즐겁습니다. 한편으로는 물이 나를 태워 주기도 하지만, 제가 잡고 밀고 나갈 수 있는 것이 되기도 한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물 안에서는 생각도 흐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생각이 고여서 고통을 계속 받는데, 물 안에서는 몸을 움직이며 어떤 감각을 지속적으로 느끼게 되니까 그 생각들을 넘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가까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큰 상실이 혜성같이 나타나 내 세계와 정면으로 부딪혔을 때, 시간은 튀어 오르고 쪼개져 흡수될 수 없는 파편으로 존재한다. 내 세계 안 균열된 시간은 경계 밖의 선형적이고 연속적인 사회적 시간과 대비되어 예측할 수 없는 순간, 나를 다른 곳으로 소환한다. 시간의 비선형성을 감지할 수 있을 때, 나는 어떤 새로운 것을 감각할 수 있을까.

배해물의 <시차>는 선형적으로 흐르는 시간 속 비선형 감각(non-linear consciousness)을 집중적으로 조명한 작품이다. 얼핏 보면 <시차>는 리얼리즘 드라마같이 흘러간다. 1부는 윤재와 현오라는 복수 주인공을 중심으로, 그로부터 20년 뒤인 2부는 1부에서 아기로 등장했던 세민이라는 주인공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1부는 8개월 아기 신세민 유괴 사건, 2부는 무연고 장례식장 냉장고 속의 최윤재 시신탈취 사건을 발판 삼아 이야기가 펼쳐진다. 이렇게 보면 <시차>는 발단-전개-위기-절정-하강-결말로 이루어진 아리스토텔레스식 플롯 구조를 따르는 것 같아 보인다.

그러나 <시차>에는 또 하나의 시간이 평행적으로 존재하며, 극 속의 현실과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는다. 1부 1장, 대학병원 병실 TV에서는 실시간으로 성수대교 붕괴 속보가 전해지고, 1부의 시간은 이를 기점으로 재정비된다(D-0). 이 평행 시간의 기준점(D-day)은 2부가 시작됨과 동시에 또 한 번 조정된다. D-11로 시작된 2부의 평행 시간은 4장 세월호 전복(D-day)과 함께 남은 2부 극 속의 현실을 뒤흔든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 같던 장면들은 튀어 올라 시간적 파편이 되어 재구성된다. 6장, 시간은 갑자기 3년여를 뛰어(D+1279) 반장님의 시신 발견 소식을 듣는 선아를 비춘다. 바로 다음 장에서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 5장의 뒤를 이어(D+31) 세민에게 말을 거는 조문객의 등장을 보여준다.

현대 연극은 한계의 미학을 연극성의 정수로 삼는 매체이다. 영화와 비교했을 때, 보통의 리얼리즘을 기반으로 한 드라마는 제한된 시간과 제한된 공간 안에서 제한된 인물이 하나의 사건을 겪으며 변화하는 여정을 뚜렷이 보여준다. 그렇기에 극 속의 매 장면은 서사 구조상 기능적 목적을 지니며, 극 속 시간은 우리가 사는 현실 속 시간에 비해 1.5배 이상 빠르게 흐른다. 극 속 인물들은 현실 속 사람들에 비해 명징한 목적과 의도를 지니며, 극은 인물의 욕망에서 비롯된 갈등을 연료 삼아 운동성을 지닌 채 절정을 향해 앞으로 나아간다. 이 틀을 깨는 것이 목적이 아닌 이상, 대부분 극장에 올라가는 연극은 발단에서 결말까지 향할 때 가속이 붙는 형태의 인과적이고 연속적인 선형 시간의 감각을 사용하여 공연을 짓는다.

하지만 <시차> 속 체감되는 시간의 흐름은 사뭇 다르다. 1부 1장은 마치 하나의 온전한 단막극 같은 형태로 극의 초반에 자리 잡고 있다. 윤재와 희영 사이 그렇다 할 사건도 갈등도 보이지 않는다. 발단으로서 전체 극을 움직이게 할 디딤대가 부재한 것이다. 마치 <고도를 기다리며>의 '고고'와 '디디'처럼, 그들은 그저 병실에 앉아 사과를 깎아 먹으며 부딪히지 않는 대화를 나눈다. 이 대화의 목적이나 방향은 딱히 없다. 그저 간헐적으로 나오는 참사 보도를 보고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채울 뿐이다. 동력의 부재에 또렷해지는 것은 이 순간에 머물고 있다는 시간적 감각이다.

평행 시간과 부딪힌 1부 1장은 세월호 침몰을 다룬 2부 4장과 같이 극 속 현실과는 다른 세계를 보여준다. 온 세상이 성수대교 붕괴로 뒤집어졌지만 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은 것 같아 보이는 윤재와 희영의 세상의 시간은 멈춰 있다. 내가 입을 피해가 없음을 확인한 순간, 묘한 안도감과 함께 찾아오는 양심의 부채감, 그럼에도 더 누리고 싶은 한시적 평온감, 이러한 정동(情動, affect)으로 1부 1장은 참사의 순간에 머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재와 희영의 무의식은 참사에 반응한다. “...저기 희영 씨 (...) 남편이 희영 씨 사과 못 먹는 거 알고 있지?”, “나 실은 그런 계획도 세워봤거든. 우리 세민이를 안전한 사람 손에 맡기는 계획.” 이들은 복잡한 정동 속 선의를 서로에게 뻗으며 평소였으면 굳이 하지 않을 속마음을 나눈다.

단막극 같은 1부 1장이 마무리되면 극은 앞으로 달리기 시작한다. 중간중간 1970년 원주 삼광터널 열차 충돌 참사 유가족인 현오, 정현과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에 각별한 이를 잃은 선아, 반장님 앞 파편화된 참사의 시간이 산발적으로 찾아오기도 하지만, 1장 이후 극은 최세민 유괴 사건과 최윤재 시신탈취 사건을 중심으로 불완전한 선의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 내기 위해 전진한다. 2부 4장 D-day를 맞이하기 전까지.

극장에 들어서는 순간 관객은 극장 밖 현실을 잊고 극 속 현실의 시간과 동화된다. 2014년이 배경인 2부가 시작되면 관객은 2014년으로 돌아가 인물들과 함께 시간을 감각하고 걸어 나간다. 하지만 2부 4장, 세월호가 전복되며 극장 밖 2024년의 시간 감각은 극장 안으로 침투한다. 지금까지 극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 마치 공동의 기억 조각이 된 것처럼, 파편화된 기억은 마땅한 기준과 당위 없이 관객의 눈 앞에서 재구성된다. 2024년의 선아는 유적 현장에서 호미를 떨구며 산발적으로 찾아온 참사의 시간을 맞닥뜨리고, 1995년의 6월 논문을 쓰던 선아의 무선 호출기는 계속해서 울리고, 2022년 헬러윈, 지수는 친구들을 향해 다급히 문자를 보낸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공동의 기억으로까지 확장된 극은 엔딩을 향해 튀어 오른다.

<시차>의 마지막 장면은 2부 6장 반장님의 시신을 발견했다는 극 속 사실과는 정 반대되는 순간을 담고 있다. D+365, 최윤재의 장례를 치른 선아는 세민과 유적 발굴 현장에서 작업을 하다 시간의 파편을 맞이하듯. 그 파편에 이끌려 1년 전 D-1로 닿은 선아, 반장님께 가지 말라고 애원한다. “내일 그냥 여기로 오는 걸로. 같이 계시는 걸로.” 무언가를 알아챈 반장님의 “그래.”라는 답변과 함께 극은 끝나지만 참사의 파편으로 생긴 평행 시간은 관객의 감각 안으로 확장되며 지속된다.

마치 근육처럼, 감각도 자주 인지하고 사용하면 더욱 기민해진다. 극장 안 비선형 시간을 함께 목도하는 경험을 통해 그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고 그 어떤 논리나 당위로도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한 가운데에서, 벌어진 틈새로 휘어지고 분출하는 시간 속 찬란한 슬픔의 빛을 온전히 맞이할 수 있는 힘을 느낄 수 있기를.

### 시차 D-Day 타임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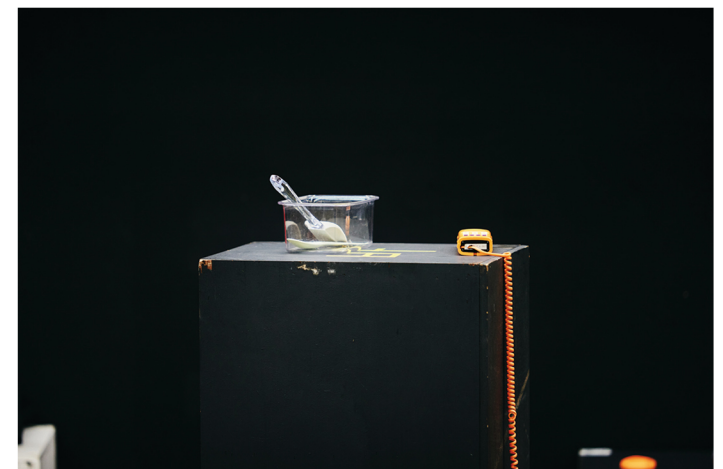
#### 1부

- 1장 1994년 10월 21일 (D-0) 오전 8시를 막 넘긴 시간
- 2장 1994년 10월 21일 (D-0) 정오에 가까운 시간
- 3장 1994년 10월 21일 (D-0) 늦은 저녁
- 4장 1994년 11월 21일 (D+31) 아침
- 5장 1994년 11월 21일 (D+31) 밤
- 6장 1994년 11월 22일 (D+32) 저녁
- 7장 1994년 11월 22일 (D+32) 늦은 저녁
- 8장 1994년 11월 28일 (D+38) 오전
- 9장 1994년 11월 28일 (D+38) 오후 한 시 즈음
- 10장 1994년 12월 25일 (D+65) 저녁
- 11장 1994년 12월 31일 (D+71) 자정이 가까운 시간

#### 2부

- 1장 2014년 4월 5일 (D-11) 이른 아침
- 2장 2014년 4월 5일 (D-11) 오전
- 3장 2014년 4월 9일 (D-7) 낮
- 4장 2014년 4월 16일 (D-0)
  - 2024년 4월 16일 (D+3653) 낮
  - 2014년 5월 16일 (D+30) 밤
  - 2011년 12월 24일 (D-844) 새벽
  - 2014년 4월 17일 (D+1) 새벽
  - 1995년 6월 29일 (D-6866) 저녁
  - 2022년 10월 29일 (D+3118) 밤
  - 2015년 4월 21일 (D+370) 낮
  - 2015년 4월 16일 (D+365) 밤
  - 2014년 5월 17일 (D+31) 새벽

- 5장 2014년 5월 17일 (D+31) 아침
- 6장 2017년 6월 29일 (D+1170) 이른 아침
- 7장 2014년 5월 17일 (D+31) 낮
- 8장 2014년 5월 18일 (D+32) 낮
- 9장 2014년 5월 19일 (D+33) 새벽
- 10장 2015년 4월 20일 (D+369) 낮
- 11장 2015년 4월 16일 (D+365) 대낮/새벽  
2014년 4월 15일 (D-1)





**우미화**

박정현·김선아 역

연극 <금성여인숙><20세기 블루스><사월의 사원><빈센트 리버>  
 <공포가 시작된다><누란 누란><존경하는 엘레나 선생님>  
 <맨 끝줄 소년><인형의 집 PART2><외국인들> 외  
 영화 <목화숨 피는 날><서울의 봄><비상선언><담쟁이> 외  
 드라마 <정년이><운수 오진 날><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소방서 옆  
 경찰서><남남><돼지의 왕><블랙독><스카이 캐슬><라이프> 외  
 수상 2017 SACA 최고의 연극배우 여우주연상  
 2013 대한민국 연극대상 여자연기상  
 2011 대한민국 연극대상 여자연기상  
 2011 서울연극제 연기상



**정대진**

사장 형·반장님 역

연극 <더 라스트 리턴><원더랜드><영원한 평화>  
 <톡><아웃 오브 러브><마른대지><버스정류장>  
 <망토><복덕방><노를담 드 파리> 외





**허지원**

박현오·조문객 역

연극 <혁명의 춤><여직공><달나라 연속극><가모메>  
 <왕의 의자><END GAME><로퐁찬 유랑극장>  
 <오늘 같은 날><사다리><서울 1964년 겨울> 외  
 영화 <개그맨><미스트><외계인 2부><대외비><뜨거운 피>  
 <통 메모리즈><암살><신이 보낸 사람><그 밤의 술맛>  
 <예술수업> 외  
 드라마 <크라시><소방서 옆 경찰서><덕구이즈백><반야>  
 <이몽><친애하는 판사님께><최강 배달꾼><비밀>  
 <풍문으로 들었소> 외



**이주협**

최윤재·윤지수 역

연극 <물고기 뱃속><성공적인 직업생활><러브 앤 인포메이션>  
 <문순><FBW><ANAK><오피스><네가 있던 풍경> 외



**신지원**

최희영·최세민 역

연극 <숨쉬듯 귀엽게>(NON-Rem)<등연기>  
<당신의러브>(Searching for home2022)  
<플랑크톤댄스>(Lügen frei)<이몸이 만든 드라마>  
<모자\_숨\_스물다섯(스물다섯)> 외



1994년과 2014년 혹은 또 다른 참사에 대한 기억  
그리고 현재 <시차>를 작업하며 느껴지는 감각들을 들여다봅니다.

참여: 배해률(극작가), 윤혜숙(연출), 김지혜(드라마터그), 김성령(조연출)  
우미화, 정대진, 허지원, 이주협, 신지원(배우)

1994년 10월 21일 성수대교 붕괴 참사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기억이 나지는 않는다. 어쩌면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동생이 꿈지락대는 것을 세상 신기하단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을지도.	본가에서 가족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있었다. '전원 구조' 보도를 보고 TV를 켜던 것이 기억난다.
그때 나는 초등학생이었다. 등교 준비를 할 때마다 아침 TV프로그램을 틀어놓았는데, 갑자기 다리가 무너졌다는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던 기억이 어렴풋이 있다. 아닌가. 교실에서 TV로 다 같이 참사 속보를 봤던 것 같기도 하다. 뒤쪽박죽이지만 내 기억 속에 어렴풋이 남아있는 첫 번째 참사이다.	그때 나는 연습실에 가기 전에 치과에서 사랑니를 뽑았다. 입안 깊은 곳에 거즈 뭉치를 물고 지혈하고 있었다. 전원 구조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연습실에 도착했지만 사실이 아니었다. 왜 그랬는지 거즈 뭉치를 뱉을 수가 없어서 계속 짹 물고 있었다.
어렸을 때, 순환선이라 알려진 2호선이 합정까지만 운행했을 때가 있었다. 당시 합정-당산 구간은 셔틀버스를 타고 다녀야 했는데, 99년 당산철교가 재개통 되었을 때, 95년에 결정된 철교 재시공이 성수대교 붕괴의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마음 속 깊은 곳에 무서움과 다행이라는 상반된 감정을 느꼈던 기억이 있다.	아직은 겨울의 끝자락이 느껴지던 시카고, 4월의 밤. 리허설을 다녀와 JTBC 유튜브에 올라온 세월호에 대한 속보를 시간을 잊은 채로 봤었다. 전원 구조라는 오보를 보고 마음을 쓸어내리며 자러 갔었던 기억이 있다.

1994년 10월 21일 성수대교 붕괴 참사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성수대교 참사에 대해 생각하면 무학여고 학생들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 내가 태어나기 전 일어난 우리나라의 현대사들을 학생이 되어서야 알게 되면서 나와 비슷한 나이에 세상을 떠난 학생들이 가장 깊게 남아있는 것 같다. 작품 리서치 과정에서 참사 시간이 아침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하는 금요일 아침, 모두가 각자의 자리로 가고 있는 그 시간에 누구도 예상 못 한 일이 일어났다는 점이 아프게 다가온다.	당시 나는 휴대폰 없이 기숙사 학교에 살던 학생이었다. 휴대폰이 없는 우리에게 그날의 뉴스는 서로의 말과 말로 전해지곤 했다. 참사 당일 또한 누군가의 말로 '제주행 수학여행 배가 바다에 전복됐는데 다 구조됐다.'라는 식으로 전해지고 말았던 기억이 있다. 그래서 정말 아무렇지 않게 일상을 보내고 주말이 되어 집에 온 후에야 세월호 참사의 심각성을 알게 되었다. '분명 월요일까진 사망자가 64명이었는데, 아까 4시 30분쯤 (계속 늘어날 것 같아 시간을 적어본다.) 친구 말로는 108명으로 늘어났단다...', '기적을 바라며...' 또 한 주가 지나가는 것을 붙잡으며...' 2014년 4월 22일 화요일 당시 나의 일기를 찾아 인용하는 것으로 그날의 기억을 정리해 본다.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그다음 해 삼풍 백화점이 무너졌다. 나에겐 두 참사에 대한 기억이 연관되어 남아있다. 눈앞에 있어야 할 것들이 순식간에 없어져 버린 모습과 무너진 잔해 속에서 생존자가 무사히 구조되길 그저 TV로 지켜봤던 기억.	목포 신항에 인양된 세월호 선체를 처음 본 순간을 기억한다. 너무나도 비현실적으로 내가 서 있는 이 공간과 저 공간이 분리된 것 같았다. 거대한 선체가 위태롭고 외롭게 우뚝 서있는 모습이 지금의 현실을 말해주고 있었다. 모든 기억과 상실과 고통이 외롭지 않기를.
내게 1994년의 성수대교와 관련된 기억은 딱 잘려 나간 다리의 이미지로만 남아있는데, 그마저도 그때의 기억인지, 그 이후에 어디선가 본 이미지인지 정확지 않다. 오직 대입만을 위해 온종일 학교에서 보내야 했던 나의 고등학교 시절은 잘려 나간 다리만큼 딱 떨어져 사라져버린 기억이다.	그날 오전, 학생 단체 특별 공연이 있어 공연을 끝내고 극장을 나왔는데 배우 중 한 명이 수학여행을 가던 배가 침몰했는데 전원 구조됐다는 이야기를 했다. 순간 공연을 보던 학생들과 수학여행을 하던 학생들이 겹치면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에 안도의 한숨이 절로 나왔다.

1994년 10월 21일

성수대교 붕괴 참사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1994년 10월 21일

성수대교 붕괴 참사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어렸을 때라 다리가 무너지는 것이  
참사라는 것도 감각하지 못했던 것 같다.  
'아 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는  
것이구나.'하고 생각했던 기억.  
뉴스에 나오던 무너진  
다리위 부서진 차들이 떠오른다.

워  
지  
의

참담했고 무력했고 미안했다.  
지켜볼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을  
자책하기도 했다.

3100번 버스를 타고  
성수대교를 넘어본다.  
당일치기 버스여행을 다니던 운재처럼.  
그런 날의 운재라면 아마도  
창가 쪽 자리에 앉았겠지.  
어떤 풍경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일상적으로 오가던 다리가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어떤 충격이었을까?  
누구를 걱정하게 됐을까?  
/ 성수대교 사고 희생자 위령비로 가는 길은  
가깝지만 험난하다.  
부러 찾아가야 하는 장소가 아니라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마주할 수 있는  
추모의 장소라면, 진작에 만났을까  
혹은 스쳐갔을까 생각해 본다.

이  
지  
의

그날의 내가 어땠는지  
뭘 하고 있었는지는 도무지  
기억나지 않는다.  
2014년 4월 16일의 기억은  
전원 구조가 오보였다는 보도부터 시작한다.  
당일은 그저 충격의 감각으로,  
직후의 날들은 슬픔과 분노의  
감각으로 남아있다.  
/ 10년은 길게 느껴지는데 2014년부터  
2024년은 짧게 느껴진다.  
2014년은 늘 그 실제적 거리감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 남아있다.

성수대교 참사는 간접적으로 몇 번이나  
듣고 보았지만 이전까지는 체감하지  
못했었다. 서투르고 참 부끄러운 일이다.  
그러다 <시차>를 만나고 비로소  
마주할 수 있었다.  
<시차> 작업을 통해 내가 겪거나,  
겪을 수도 있었던 참사들이 나에게 어떤  
방식으로 지속되고 있는지,  
어떻게 애도할 수 있는지 질문하고 고민했다.  
이를 통해 참 이기적이게도 '나의 일',  
즉 내가 설정한 '주변'의 거리가  
얼마만큼인지 적나라하게 느꼈다.  
지금까지 나는 성수대교 참사를 역사적인  
현상 그 자체로만 여겼었다.  
그러나 이젠 이 역시 '우리'의 일이  
될 수 있다고,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내가 모르더라도 나 혹은 우리가  
될 수 있다고, 물리적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만 '주변'이 아니라고.  
지금까지 무지해왔던 과거를 인정한다.

사  
지  
의

세월호 참사가 있었을 때를 여전히  
생생하게 사진처럼 기억한다.  
식당 바닥에 앉아 망망대해에 떠 있는  
배를 보며 큰일이 아닐 거라고, 구조된다는  
문구를 있는 그대로 믿었다.  
밥을 다 먹고, 자리를 옮겼는데 휴대폰 안에  
기사들이 제각각 아까와는  
다른 말들로 둔갑해 있었다.  
그제야 '큰일이구나. 큰일인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일인 거지. 왜 여전히 사람들을  
못 구하고 있는 거지.' 생각했다.  
그러면서 지인들의 안부가  
서늘한 방식으로 묻고 싶어졌다.  
사실 좀 전까지도 이렇게 큰 일이  
될 줄도 모르고, 안일했던 내가 아직도  
선명하게 감각된다.  
이후에는 대체 이 슬픔이, 상황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가, 마음은 계속 슬프고  
아팠다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여전히 모르는 채로 그저  
잊지 않으려고 했다.  
그러다 조금씩 이 마음들을 타인과 나누고  
그들의 마음을 들으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했다.  
나는 여전히 제자리이지만 누군가들이  
거리에서, 극장에서 공유해 주는  
마음을 보며 나는 어디에 있는지,  
이 기억이 내 안에 어떻게 멈춰 있는지  
생각할 수 있었다.



연습 노트  
김성령(조연출)

#시간의 간극을 찾아서  
작품 속 참사 리서치

1970년 10월 17일 원주 열차 충돌 참사

1970년 10월 17일 오전 10시 57분 서울발 경주행 77 여객열차가 원주역에 들어선다. 이 열차 안에는 서울 인창고, 보인상고, 보성여고 학생 700여 명이 타고 있었다. 11시 9분경, 열차는 선로를 달려 단선 철도를 앞에 두고 신호를 기다렸다. 교행하는 지점에서 대기해야 반대 방향에서 오는 기차와 충돌하지 않는 구조였다. 그러나 선로에서 열차를 제어하는 열차 집중 제어장치(CTC) 신호 통제에 문제가 생겼고, 두 개의 열차는 각자 신호에 맞춰 출발했으나 어두운 터널 안에서 77여객 열차는 반대 방향에서 달려오는 1508호 화물 열차와 충돌하게 된다.

이로 인해 인창고등학교 2학년 1, 2반 학생들이 타고 있던 첫 번째 객차는 충돌과 동시에 위로 솟구쳐 찌그러져 버렸고, 인솔 책임자인 교감과 담임 교사를 포함해 12명이 사망, 50여 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1994년 10월 21일 성수대교 붕괴 참사

1. 참사 당일

1994년 10월 21일 오전 7시 38분 서울시 성동구 옥수동 한강에 위치한 성수대교의 제10-11번 교각 사이 상부 트러스가 붕괴해 무너져 내렸다. 사고 부분을 달리던 승합차 1대와 승용차 2대는 트러스와 함께 한강으로 추락했고 붕괴 지점에 걸쳐 있던 승용차 2대는 물속으로 추락, 16번 시내버스는 통과 도중 뒷바퀴가 붕괴 지점에 걸쳐 있다가 차체가 뒤집혀 추락한 후 상판에 박혀 찌그러져 버스 인원 31명 중 29명이 사망, 성수대교 붕괴 참사로 총 32명이 사망했다.

사상자 32명 가운데 무학여자고등학교 학생 8명과 무학중학교 여학생 1명이 포함되어 있었고, 사고 차량 중 승합차엔 제49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우수중대로 선정되어 표창을 받기 위해 본대로 가던 의경 11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들은 전원 무사하여 요구조자들을 구조하기도 했다.

“카테일 사랑 노래가 라디오에서 들려왔고, 다 같이 가고 있는데 돌이 눈앞으로 튀어 오르는 거예요. 그게 제가 타고 있는 그 붕괴차가 떨어지면서 제가 붕괴되는 다리 파편을 보는 거였더라고요. 떨어지고 나서는, 버스가 보였어요. (중략) 구조 당시에 잠깐 기다리라고 하고 금방 구조대가 올 거라고 하면서 조금만 참으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한 분 한 분 돌아가셨어요.”—서울지방경찰청 제3기동대 40중대 소속 경찰 인터뷰 중

2. 전조 증상

“사고 전날, 94년 10월 20일 시민 중 한 명이 다리 이음새 부분이 벌어진 것 같다고 신고했다.”  
“사고가 일어나기 1시간 전, 신고제보가 있었다. 다리를 지나던 운전자였는데 새벽 6시쯤 덜컹, 다리 중간에서 충격이 느껴졌다. 이미 그때부터 다리에 금이 가고 있었다고 추정된다.”

3. 참사 이후

- 검찰은 건설 관계자와 서울시를 양쪽 모두 기소했다. 시설물 안전과 유지 관리에 대한 특별법 제정, 한국시설안전공단도 이때 처음 설립되었다.
- 1995년 6월 29일, 성수대교 붕괴 사고 원인 백서, 재발 방지를 위한 사고 원인을 추적하여 출판하였다. (이날은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가 일어난 날이기도 하다.)
- 1997년 7월 3일 참사 이후 2년 8개월, 전면 재건축을 결정하고 성수대교 재개통식이 열렸다. 현장에는 성수대교 붕괴 참사 유가족들이 초정되었다.

1995년 6월 29일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1995년 6월 29일 목요일 오후 5시 57분, 서울 서초구에 있는 대규모 백화점이 약 30초 만에 무너져 내렸다. 성수대교 붕괴 참사 이후 8개월 만에 벌어진 일이고, 해당 참사로 인해 약 502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삼풍백화점은 기동과 위층 바닥 사이에 하중 전달을 보조하는 지판의 두께를 충분하지 않게 만들거나, 건물 옥상에 무게를 견뎌낼 수 없는 에어컨 냉각탑을 과도하게 설치하는 등 부실 공사 및 부실 관리가 붕괴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평일 오후 6시에 가까운 시각 발생한 참사로써 사상자 502명 가운데 하루 일과를 마치고 퇴근길에 백화점에 들른 손님, 저녁거리를 사러 나온 주부 손님 등이 포함되어 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1. 참사 당일 각자의 기억을 나누다.
2. 애도와 관련된 서적 공유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것. 대본에 드러나 있지 않은 정서를 일깨우고자 연습실 한 칸에 연출부와 배우가 책을 가져다 놓고 공유했다.

- 416세월호참사 작가기록단, 『금요일엔 돌아오렴』, 창비(2015)
- 416세월호참사 작가기록단, 『520번의 금요일』, 온다프레스(2024)
- 416 세월호 참사 시민기록위원회 작가기록단, 『봄을 마주하고 10년을 걸었다』, 온다프레스(2024)
- 304낭독회, 『사람이 사람에게, 사람의 말을 이어갑니다』, 온다프레스(2024)
- 호프 에덜먼, 『슬픔 이후의 슬픔』, 다산북스(2022)
- 마거릿 렌클, 『우리가 작별 인사를 할 때마다』, 을유문화사(2023)
- 한강, 『작별하지 않는다』, 문학동네(2021)
- 왕은철, 『애도예찬』, 현대문학(2012)
- 10·29 이태원 참사 작가기록단, 『우리 지금 이태원이야』, 창비(2023)

#시간의 흐름과 충돌을 감각하며  
씬 스케치

대본 리딩을 마치고 가벼운 마음으로 자전거 타듯 씬 스케치를 시작했다.

씬 스케치를 시작할 때, ‘만약에’ 라는 질문을 품고 움직였다. 이미 벌어진 과거의 참사를 바라볼 때, ‘만약 그 다리를 건너지 않았더라면?’, ‘만약 그때 거길 가지 않았더라면?’ 등의 ‘만약’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 질문을 작품 내용으로 확장하며 ‘만약 우리가 만나지 않았더라면?’, ‘만약 그 사람이 병실에 오지 않았더라면?’, ‘만약 널 찾지 않았더라면?’ 등의 질문을 품고 주어진 상황 속 인물들의 방향을 알고자 했다.

그리고 씬 스케치 처음부터 극장까지, 1부에서는 인물의 일상적인 대화들이 비일상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면을 만들었다. 참사가 일어난 현장을 연상케 하는 공간과 비당사자인 인물들의 일상적인 이야기를 동시에 재생하여 전체적인 풍경이 아이러니하게 보여질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 아이러니함을 객석으로 전달하여 무대 위 인물들의 드라마와 드라마를 벌여놓은 이 공간이 복합적으로 느껴질 수 있게 만들었다.

2부에서는 뒤틀린 시간을 다룰 때 작품에 적합한 시공간에 주목하였다. 참사를 두고 언제까지나 종결되지 않는 시간을 인물들의 뒤틀린 발화로, 그럼에도 계속해서 흘러가는 시간으로 표현하였다.

이러한 비선형적인 시공간 안에서 공연을 보는 당신의 시차도 함께 감각될 수 있도록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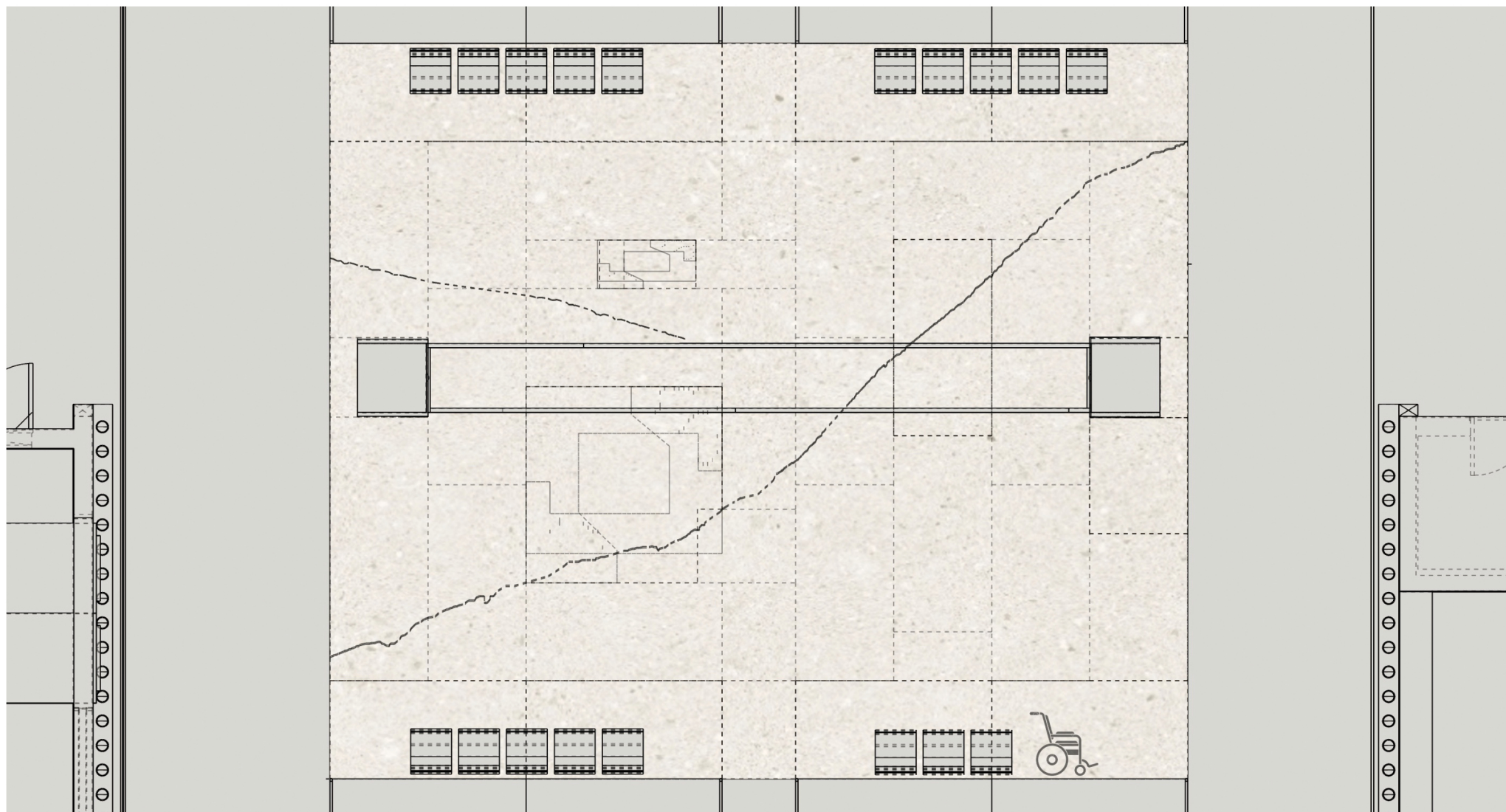
참고자료

1970년 10월 17일 원주 열차 충돌 참사  
- 이기훈, 『학교와 재난: 한국 근대의 두 얼굴』, 『문화과학사』, 2017

1994년 10월 21일 성수대교 붕괴 참사  
- 『성수대교 붕괴 참사』, 두산백과  
- 유튜브, 『안전한TVx근황을읽자』 성수대교 생존자를 만나다

1995년 6월 29일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한국민족문화대백과  
- MBC 뉴스데스크, 『삼풍백화점』, 1995.7.7 방송분  
- tvN 알쓸법잡, 『삼풍백화점 붕괴 원인』

I suddenly have the horrible feeling  
that I was in the wrong place.



의상디자인 노트  
김미나

1부 1994년에 사는 윤재, 현오, 정현, 희영, 사장 형은 그 당시 유행하던 복고 패션, 힙합-스트리트 패션을 기반으로 준비했습니다. 밝은 느낌의 파스텔 색조를 활용하여 자유롭고 풍요로웠던 90년대의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2부 2014년에 사는 세민, 지수, 선아, 반장님, 조문객은 장례식장이 주요 배경이라 1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거운 느낌으로 의상을 구성했습니다. 더불어 2024년 현재와도 동떨어지지 않게 단순하고 현대적인 의상들로 구성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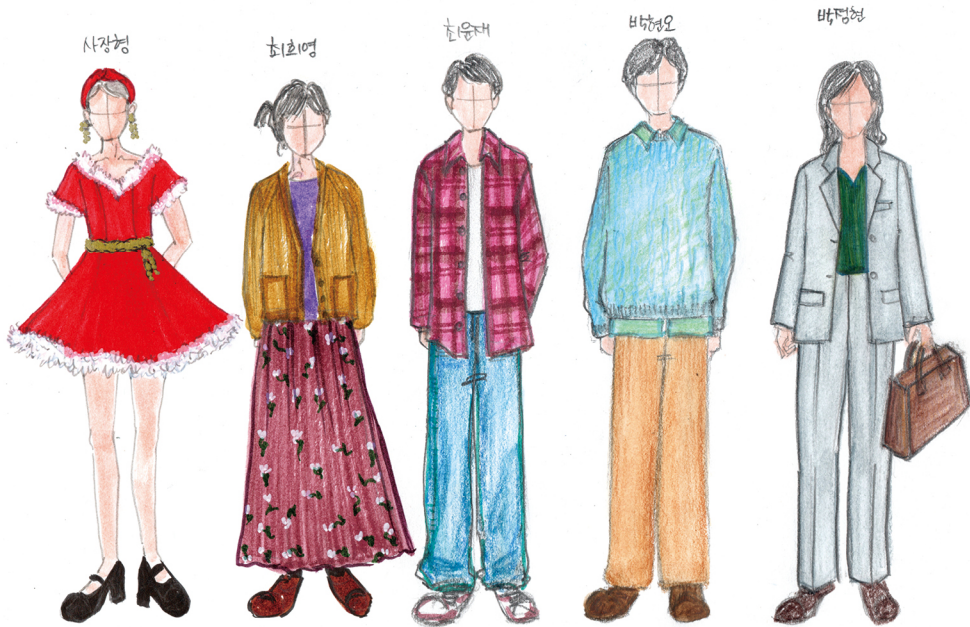
1부와 2부의 시차에 따라 배우들의 옷을 다른 느낌으로 배치해 다른 시대와 시간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2024년 현재, 90년대 스타일이 MZ세대에게 인기를 얻고 유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품 속 다른 시기에 사는 캐릭터들의 옷을 준비하면서 다시금 돌고 도는 유행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1994년과 2014년을 지나 작품을 올리는 2024년 현재까지 변한 것과 그대로인 것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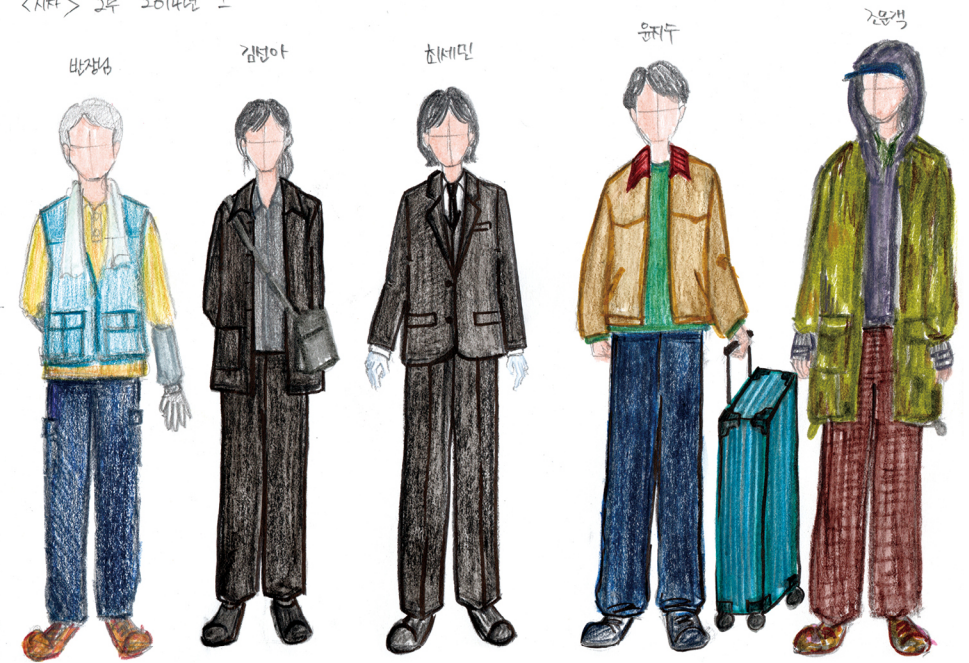
온 나라가 큰 슬픔에 잠겼던 여러 사고와 참사들,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시간이 흐르고 일상을 살아가면서 점점 흐려졌던 기억들,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슬픔.

2014년에 장례지도사로 일하고 있는 세민이 고인을 정성스레 염을 하고 좋은 곳으로 보내드리려는 마음처럼, 저 역시 더는 큰 사고와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작품을 준비했습니다.

<시차> 1부 1994년



<시차> 2부 2014년 ±





DAC Artist 배해물  
시차

2024.10.29-11.16  
두산아트센터 Space11

기획·제작  
두산아트센터

음향·영상오퍼레이터  
김세영

두산아트센터

작  
배해물

음향 크루  
강용진 박산결

센터장  
강석란

연출  
윤혜숙

영상 크루  
장주희

예술사업1팀장  
김요안

드라마터그  
김지혜

의상디자인  
김미나

공연기획  
남윤일 신가은 이정민

출연  
우미화 정대진 허지원 이주협 신지원

의상제작  
코스튬스토리

홍보마케팅  
강소라 강소정 한나래 김에리 박지희

조연출  
김성령

분장·소품디자인  
장경숙

티켓  
이희정 김지은

프로덕션 무대감독  
이목수

분장팀  
홍주미

사무  
고해민

무대디자인  
김혜림

소품팀  
박진아

예술사업2팀장  
박찬중

무대제작  
wa stage(와스테이지)  
(대표 조환준 / 제작·설치철수팀  
이종민 윤진상 정병문 이범용

자막해설디자인  
이칭

전시기획  
장혜정 유진영 강하람 박성은

작화  
작화공간  
(대표 이남련 / 작화팀 박지원 김용선  
이재형)

자막해설오퍼레이터  
이수림

교육기획  
정다운 이보라 박세연

무대전환  
방찬욱

터치투어 제작·운영  
이칭

기술총괄  
신승욱

조명디자인  
성미림

관객과의 대화 문자통역  
소리들빛다 이시은

음향  
류호성 전경미

조명팀장  
곽태준

그래픽 디자인  
박연주

조명  
황동철 왕은지 김수민

조명오퍼레이터  
박자연

사진(포스터, 프로필)  
정희승

무대  
강현후 박소연

조명크루  
고민주 김지산 박자연 유보민 윤혜린  
이지민 이하은 이한별 전현식

사진(연습 및 공연)  
Studio AL(대표 김윤희)

하우스  
권지은 유지민

음악감독  
박소연

관객과의 대화 사진 촬영  
이재호

하우스 안내원  
최다연 이준(헤드 어시스턴트 매니저)  
감재원 권도이 권혁진 금다애 기나연  
김채연 남연수 박찬호 서유정 서장훈  
송해원 신아영 유진아 윤아진 이건구  
이담빈 이민주 이승규 이재빈 이재이  
이지민 이현지 전윤희 정주원 지혜원  
홍연재

음향디자인  
임서진

SNS콘텐츠제작 및 영상 기록(연습)  
필루미에르(대표 이화승)

영상디자인  
강수연

영상 기록(공연)  
헤즈스튜디오

음향·영상 시스템디자인  
이현석

인쇄  
으뜸프로세스(대표 김영욱)



(왼쪽부터 시계방향) 정대진 신지원 김성령 허지원 윤혜숙 이주협 김지혜 배해물 우미화



두산연강예술상 수상자  
이흥도 신작

# 꿈의 연극

기획 • 제작 두산아트센터, 크리에이티브 VaQi  
작 이흥도  
연출 정은순  
연출부 백승진, 조다은  
출연 김홍국, 나경민, 박여름, 성수연, 우범진  
컴퍼니 어드바이저 이경성

2024.11.26-12.14  
두산아트센터 Space111

# 두산 아트센터 교육 프로그램

## 2024 겨울

Studio  
DAC

두산은 젊은 예술가들의  
새로운 시도를  
응원하고 지원합니다

### 두산아트스쿨

두산아트스쿨: 10.10 - 10.31  
매주 목요일  
미술

불, 흙, 물, 공기 그리고 건축  
남성택 (한양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 Studio DAC

#### 리딩 클럽

텅 빈 무덤의 목소리  
김연재 (극작가)  
10.25 - 11.1

영원히 몰랐을지도 몰라, SF의 사랑  
우다영 (소설가)  
11.21 - 12.5

#### 스몰 토크

번역 - 해석하고 전달하기  
정지수(번역가), 하은빈(작가),  
김수빈(번역 작가)  
11.4 - 11.6

장르문학 - 다른 세계를 상상하기  
해도연(SF작가), 심완선(SF평론가),  
박해울(소설가)  
12.2 - 12.4

#### 아트 클래스

11.13, 11.18 움직임기  
권은혜 (배우)

11.16, 11.23 쓰기 - 희곡  
강동훈 (극작가)

12.9, 12.12 쓰기 - 에세이  
안담 (작가)

12.16, 12.18 쓰기 - 회고와 계획  
박세련 (연출가)

예약·문의 두산아트센터

@studio.dac\_doosan

02-708-5001

doosanartcenter.com

webmaster@doosanartcenter.com

